

# “경영학은 단순한 기법의 모음집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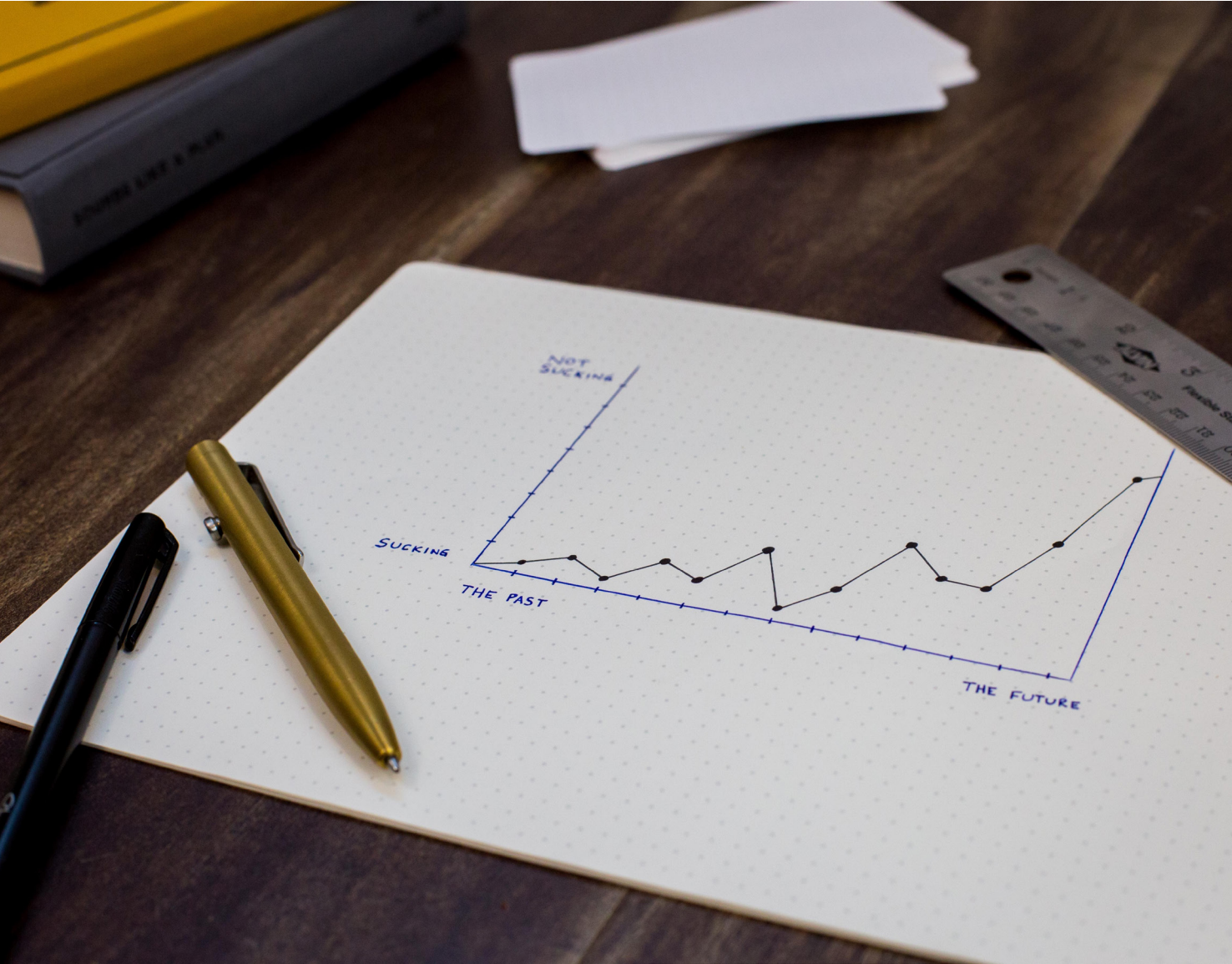


양 대 규

부교수 · 경영학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의 중심에는 올바른 경영이 있다. 이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경영의 실패와 경영의 부재라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가만히 한 번 주변을 돌아보자.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적 경영의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경험하는 실상은 “과연 제대로 된 경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경영의 부재와 실패의 만연이다. 세상은 그저 있는 대로 돌아가는 것만 같고, 조직도 그냥 있으니 존재할 뿐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요,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 현실에 더 가깝다. 그러니 결국 “올바른 경영은 존재하는가?”라는 회의에 찬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자. 딱히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리더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그릇된 의사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는 대변에 알아차릴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낙관적인 전망으로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경영의 부재와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경영에 관한 흔한 오해로부터 찾아야 한다. 누구라도 맡겨지지만 한다면 쉽게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그것이다. 성공의 표본으로 언급되는 유명 경영인의 대부분은 경영을 체계적으로 배운 일이 없고, 세상이 관심 갖는 사업의 소재를 선점하기만 한다면 경영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망상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 원인이다. 웬만큼 배우고 세상을 살아 본 사람이라면 경영 정도야 해낼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이학과 공학의 기술적 지식만을 요구하고,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을 경시하는 풍조 또한 이 같은 미신에 기반한 것일 뿐이다. 문명사에서 경영에 관한 학



대학은 올바른 가치관을 기반으로 부단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학 자체의 운영에도 학문적 사고체계로서의 경영이 절실함을 깨달아야 하며, 경영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올바르게 배치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스플래쉬)

문이 출현해 사회과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에 관한 집단적 망각이 경영의 실패와 부재의 만연을 조장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종합대학이 하나의 학문체계로 경영학을 확립하고, 경영대학과 경영대학원을 설립하게 됐던 그 시초에는 전문인으로서의 경영 엘리트 예비군의 배출을 시대가 요청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 대학은 세상의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대학의 중대한 사명임을 깨달아야 하고, 학문으로서의 경영에 관한 가치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인류문명사에서 경영대학이 출현하게 됐던 근본적 이유는 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소양을 쌓은 전문경영인의 양성이 역사적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경영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양성될 수 있는 것임을 직시했던 20세기 초 미국의 대학 사회는 서로 앞다퉈 경영대학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법률지식을 갖

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대학이 필요했고 의학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춘 전문인을 위해 별도의 의과대학이 필요했던 것처럼, 체계적 경영지식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경영대학 또한 문명사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근대 이후 출현하기 시작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올바른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전문지식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도래 이후, 미국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더 많은 번영을 누렸던 데에는 이 같은 경영대학의 설립이 크게 한몫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이 경영에 관한 체계적 교육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못해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문지식인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대학이 세상의 그릇된 풍조에 무심하게 부응해 인문사회과학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영학을 경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생 또한 경영의 학문적 가치를 좌시하고 그저 당장의 밥벌이에 요긴한 단순한 테크닉과 스킬을 얻는 데에만 몰입한다면,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경영의 실패와 부실은 더욱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영은 시중에 널려 있는 단순한 경영기법의 모음집이 아니다. 경영은 심리, 사회, 역사, 인문, 경제, 정치, 기술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체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경영의 부재와 실패는 그 같은 사고체계를 익히지 못한 비전문인이 경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경영이 필요한 자리에는 경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영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와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전문 지식인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조직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경영 사안을 단지 자신의 협

소한 경험과 무모한 욕감에 의존해 결정하는 능력 없는 비전문인의 경영인을 대체할 대안적 경영인이 되기 위해, 경영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경영적 사고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예비 경영인은 오직 대학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배출될 수 있음을 대학 또한 명심해야 한다. 대학은 올바른 가치관을 기반으로 부단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학 자체의 운영에도 학문적 사고체계로서의 경영이 절실함을 깨달아야 하며, 경영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올바르게 배치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류사의 전환기에 대학이 언제나 중대한 역할을 했던 것은, 대학이 단순한 시대 풍조에 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풍조 뒤에 숨겨진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고 학술의 본질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경영 실패와 경영 부재의 문제는 비록 느리더라도 충실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